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법! 이전 일일랑 잊고 열린 2022년을 힘차게 달려봅시다. 올해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자가 됩시다. 전심전력(專心全力)이 됩니까?오로지 전(專)에 마음 심(心), 온전할 전(全)에 힘 력(力)으로 맡은 일에 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딤후4:15).

1976년 지미 카터는 대선에서 승리해 39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지만, 4년 후 공화당 소속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게 패해 재선에는 실패한 대통령입니다. 카터는 단임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지만, 퇴임 후 저소득층을 위한 집짓기 운동인 해비타트 활동과 전 세계를 누비며 저개발국의 민주적 투표 참관인 봉사, 질병 퇴치, 인권 증진 활동에 전념하여 퇴임 대통령으로서 모범적인 삶을 사는 ‘가장 위대한 전직 대통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가 대통령에서 물러난 후 자신의 회고록을 집필했는데, 그 제목이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입니다. 그 책에서 카터가 해군 장교로 있을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군 제독 하이만 리카비가 카터에게 “귀관은 사관학교에서 공부해 몇 등이나 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카터는 “820명 중에 59등을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독은 다른 말은 일절하지 않고 “왜 귀관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하고 책망을 하더군요.

카터는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과연 매사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했고, 그 후 무슨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까지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하이만 리카비 제독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전심전력이란 전심(專心), 마음을 모으는 정신적인 최선을 뜻하고, 전력(全力), 힘을 다하는 육체적인 최선을 의미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뛰고서도 주저앉지 않고 힘이 남았다면 그는 일등을 했을지라도 전심전력하지 않은 겁니다. 권투선수가 경기가 종료되었는데도 아직 다리가 풀리지 않았다면 그 역시 전심전력한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항상 ‘대총이란 균을 잡아야 성공한다.’, ‘최고가 되려면 최선을 다하라.’고 말해왔습니다. 2022년, 성공하고 싶습니까?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매사 전심전력하는 자가 되십시오.

먼저 신앙에 전심전력하십시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막12:30). 영어 성경에 보면 “With all fo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ght”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요, 사랑도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전심전력하지 않는 사랑은 식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이별이요, 이혼하게 되어 있니까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계3:16). 하나님께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갈라서게 됩니다.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기도도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벧전4:7)고 말씀합니다. 큰 나무를 톱으로 베어낸다고 합니다. 그것에 최선을 다해야지, 하다가 말고, 대충대충 하면 잔액이 나와 톱이 나무에 끼어 이도저도 못하게 됩니다. 기도하다 말고, 중언부언 기도하면 악한 놈들의 방해만 늘어날 뿐입니다. 그래서 될 때까지, 응답 올 때까지 잡생각을 버리고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저 멀리 한 조각의 구름이 뜬 것을 보고 머리가 바닷가람이 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기도에 전심전력한 것처럼요. 그래야 하늘 문이 열립니다.

세상일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엡6:7)고 했습니다. 주께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하라 하셨으니 세상일에도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총하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큰 성인 여리고성을 함락하고는 작은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그만 참패를 당했습니다. 아이성이 작은 성이라고 우습게 여기고 대충했기 때문입니다. 제 목회 모토가 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16:10). 작은 일에도 충성(최선)을 다하면 큰 일에도 충성(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한 명 앞에서든 십만 명 앞에서든 똑같이 설교합니다. 사자가 토끼를 우습게 알고 대강대강 달리면 그날 굶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매사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후회할 일만 남습니다. 후회란 최선을 다하지 않은 자

의 탄식 아닙니까?

대총은 게으름과 동지입니다. 게으르면 절대 전심전력할 수 없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나중에 하지.’, ‘내일 하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일은 언제나 내일이요, 나중은 언제나 나중인지라 한 해가 다 가도, 평생이 다 가도 그 밤에 그 반찬으로 살게 됩니다.

2022년 목표를 정하셨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향해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쫓대를 향하여 전력으로 질주해야 합니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전심전력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전심전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이고, 전심전력하여 모든 일에 노력하고 애쓰면 밝은 미래가 꽃다발을 안고 달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는 말씀을 잘 새겨야 할 것은, 우리가 영·혼·육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진보를, 우리의 성숙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돼야, 우리가 잘살아야, 우리가 본이 되어야 세상이 우리를 쳐다보고, 우리를 필요로 하게 되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2022년, 우리!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2021. 12. 30
봉우 이초석 목사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신1:11)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시 일어나라

2022년, 새해입니다. 올해의 목표는 세우셨습니까? 올해 당신이 이루고픈 꿈은 무엇입니까?

과녁이 없는 화살은 해만 될 뿐이요, 나침반을 잃은 배는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기 십상이고, 방향이 없는 부평초는 개구리밥이 될 뿐입니다. 목표가 없는 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달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 이로라”(고전9:26~27)고 했습니다. 향방 없는 자의 삶, 목표가 없는 자의 삶은 허공을 치는 것 같으니 제발 목표를 설정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표를 설정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아들을 얻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 한나, 금의환향을 목표로 가진 아람, 무너진 예루살렘 성곽을 보수하겠다고 결심한 느헤미야, 쫓대를 향하여 달린 사도 바울,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일념에 온몸을 던진 예수님, 모두 분명한 목표를 세운 분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나 그러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원한을 풀고자 했던 이름도 없는 과부,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중환자, 2대째 소경인 바디매오... 많이 배우지 못하고, 많이 갖지도 못하고, 건강치도 못했던 그들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웠기에 마침내 이뤄낸 것이 아닙니까.

목표가 있는 자는 넘지 못할 벽이 없다

인생은 내가 그리는 그림입니다. 내가 화폭에 그리는 그림이 인생일진대, 무엇을 그릴지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명작은 고사하고 졸작도 못 그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네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가라’는 목표를 던져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목표를 제시해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 저도 목회를 시작하면서 ‘세계를 교구화 하리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세요. 그래야 스타트할 수 있고, 그래야 삶의 의욕이 생기게 됩니다.

둘째, 목표를 세웠다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목표에 도달하는 길은 절대 순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심비에 새겨야 합니다. 모세가 순직하게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나안에 다다랐습니까? 아람이, 느헤미야가, 우리 예수님이 순탄하게 목표를 이뤘습니까? No. 그야말로

산전수전, 우여곡절을 다 겪고 나서야 목표를 이뤘습니다.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는 누가 과정이 더 힘들었느냐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누가 다시 일어났느냐, 아니면 주저앉았느냐로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목표를 세우지만, 도중에 대개 포기하는 것은 과정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세계교구’라는 목표를 그냥 이론 게 아닙니다. 온갖 핍박, 추방, 방해, 사고, 테러... 그야말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이 앞길을 가로막고, 저에게 펀치를 가했지만 저는 비록 그 펀치를 맞고 넘어졌을망정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기에 오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다. 가다 보면 한 방 맞고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프지요. 피가 날 수도 있고, 다리에 힘이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다운된 것이 K.O.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어나면 되니까요.

70년대 세계 챔피언이었던 홍수환 선수가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남아 있는 것은 그가 바로 4전 5기의 신화를 낳은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인적인 펀치를 자랑하던 카라스키야를 상대로 싸우면서 2회에 자그마치 4번이나 다운을 당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코치 석에서 수건을 던졌거나 스스로 일어나기를 포기했겠지만, 홍수환 선수는 넘어져도 일어나고 다시 4번이나 일어나더니 마침내 3회에 좌우 스트레이트와 훅을 난타하며 일방적으로 몰아쳐 카라스키야를 K.O.시키고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실패자는 펀치를 맞고 넘어진 자가 아닙니다. 펀치를 맞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포기한 자가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일어나서 마침내 목표에 도달하면, 목적을 이루면 그는 역전승한 자요,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라 불리게 되는 겁니다. 아람도 외삼촌에게 강편치를 몇 대씩 맞았고, 느헤미야도 거센 방해세력 때문에 의욕이 꺾일 뻔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일에 육신을 입은 터라 심한 고통 속에 번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일어나 목표를 향하여 질주했기에 승리자요, 성공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뎅이 인생이 되십시오. 오뎅이는 눅혀봐도 비틀비를 거리다가 일어납니다. 몇 번을 때려보세요. 심하게 흔들거리지만 다시 일어나 곧 중심을 잡습니다. 오뎅이가 왜 다시 일어나는 줄 압니까? 그것은 무게중심이 받침점 바로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뎅이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려면, 즉 오뎅이 인생으로 살려면 우리 삶의 무게중심이 바로 하나님 위에 서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거하고, 하나님의 뜻 위에 바로 서면 혹 넘어졌다 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잠24:16).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고 시름에 잠겨있을 때 스스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고 목표를 제시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목표를 향하여 달릴 때 세찬 바람에 넘어지고, 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합세하여 펀치를 날려 넘어졌습니까만 다시 일어나 마침내 주님의 뜻을 이뤘습니다. 어떻게요? 그의 중심이 이미 하나님 위에 자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히10:39).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이제 3라운드, 혹은 7라운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다운

되었다고 포기하실 겁니까? 아직 반전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많은데요? 당신이 포기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당신에게 하나님도 흰 수건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일어나고자 하면 하나님이 돕는 천사와 사람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직격탄을 맞아도 다시 일어나 뜻을 이루십시오.

최고의 적은 바로 나 자신이다

‘좋은 대학을 가겠다,’ ‘나는 세계적인 영화배우가 되겠다,’ ‘나는 건강을 찾고야 말겠다.’ ‘나는 내 교회를 지금의 배로 부흥시키겠다,’ 등등 목표를 세우세요. 그리고 달리세요.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방해하는 자들을 쳐다보지 말고 귀는 막고 목표만 보고 달리세요. 손흥민 선수가 골대를 향하여 축구공만 바라보고 뛰지 않습니까? 태클이 무섭게 들어올 줄 알지만, 골을 넣고야 말겠다는 목표의식이 그를 담대하게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속도를 낼수록 저항은 커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걸 어갈 겁니까? 다운 한 번 되었다고 여기서 포기하실 겁니까?

사도 바울은 ‘쫓대’, 곧 목표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의 목표는 그날 재판장이 주실 의의 면류관이었습니다(딤후4:8). 그런데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외부의 방해세력, 저항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고 경계한 대상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통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7:24). 그렇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게으른 나, 놀고 싶은 나, 자고 싶은 나, 대충하려는 나와 늘 싸워야 합니다. 그런 나를 이기지 못하면 절대 목표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거울을 보며 거울 속의 사람을 질타하고, 채찍질하는 겁니다.

인생은 긴 마라톤경기에 비교되지요. 우리는 도상(途上)위의 주자고요. 단거리야 스피드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으나 마라톤은 자신과의 싸움, 즉 인내가 있어야 풀코스를 완주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씁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답니다. “인내가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롬5:4).

이제 시작된 새해, 단단히 마음을 먹고 목표를 향해 전심전력하여 달려봅시다. 우리가 못하는 것은 못해서가 아니라 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9:23).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2022, 새해를 맞아 예수중심교단 목회자들의 신년사를 듣는다

전심전력(專 心全力)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누가복음 10장 27절).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뜨겁게, 모든 것 다 바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자나 깨나 최고로 전심전력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확실한 증거를 갖고 계시기 때문이다(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 예쁘고 좋으셔서 그러시는 것이다. 그 마음에 만 분의 1이라도 안다면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곧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기 까지 저들을 사랑하십니까?’라고 외치시며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셨고,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

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했으리라.

이뿐 아니라 세상일도 이렇게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주님은 주문하신다. “종들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로새서 3장 22~23절).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나에게 주어진 일을 적당히 하지 말고, 구령이 담 넘듯, 눈 가리고 아웅 하듯 하지 말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주님이 보고 계신 줄 알고 최선을 다하라 하신 것이다. 누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는 주님도 아시고, 상전도 알고, 동료들도 알고, 후손들도 다 안다. 그리고 그 일의 진실성

은 결과가 대변해준다. 사람들에게 눈도장이나 찍으려는 사람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처지가 될 것이고, 비없는 구름, 열매 없는 가을나무처럼 되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것이다.

이래 사나 저래 사나 24시간 하루 사는 것이다. 적당한 시간을 때우나 전심전력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일하나 똑같이 하루가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한 달 뒤, 1년 뒤, 10년 뒤, 30년 뒤,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게 될 것이다. 그 때 후회해도 소용 없다.

매사에 전심전력해 보자.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디모데 전서 4장 15절).

서울예수중심교회 이시대 목사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



새해가 시작되었다. 같은 날이고 같은 새해지만 결코 같지 않은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새해가 시작되었다. 가끔 성도들 가운데 ‘옛날이 참 좋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그 말의 뜻은 과거의 참 좋았던 날을 추억하는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흔하지 않게 ‘정말 과거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거워진다. ‘과거가 좋았다’라는 것은 살아오는 동안 발전과 성장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신앙생활 또한 과거가 좋았다면 성장하지 못하고 퇴보했다

는 이야기일 것이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거의 시간 동안에 내가 살아온 결과물이다. 과거에 어떤 환경,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르지만 코로나 때문에, 혹 이것저것 때문에, 또는 불운해서 성장이 안 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코로나 덕분에, 이것저것 덕분에, 불운 덕분에 더 기도와 노력으로 전심전력을 다하여 성장 발전한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 지금 들어오는 물이 물레방아를 돌린다. 내 삶을 멋지게, 신앙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여 전심전력하는 것이다. 총회장 목사님 말씀처럼 ‘최고가 되려면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2절을 통하여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말씀하며 매 순간 전심전력을 다하라고 했다.
두 달 전에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천국에 가셨다.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며칠 지나지 않아 과거사 진상을 규명하는 단체에

서 아버님 뒤편과 자녀들 뒤편으로 2억 4천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연락이 왔다. 할 아버님이 좌익 성향을 가지시고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해방 후 좌익사상을 가지셨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셔서 아마 보상이 나오는 것 같았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 전화가 와서 돌아가신 분들 추모제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담당하시는 분께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제가 추모제에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 돈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더니 그쪽이 오히려 당황해하는 모습이였다.

2억 4천만 원, 나에게서는 큰돈이다.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성장한 나의 믿음이 그 돈보다 믿음을 선택하고 내 자녀와 형제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 그것이 더 감사하다. 또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새어머니께서도 중환자실에 들어가셔서 위중한 상태이다. 새어머니 형제분들께 제가 돌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니, 제가 목사이고 돌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잘 알기에 자기네들이 돌봐주신다고 했다. 그게 감사해서 아버님 집과 통

장 등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어머니만 잘 돌보달라고 말씀드렸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망설이지 않았다. 나에게서는 만만한 액수가 아니었다.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고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다.
뒷일을 생각하면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고 그것을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면 우리의 미래는 기쁨으로 다가올 것이며 주 앞에서 ‘잘했다.’ 칭찬을 받을 것이다. 올 한해 교단 슬로건이 ‘우리!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자가 되자.’라고 목사님께서 선포하셨다. 이 얼마나 감사한 선포인가. 매순간 쉬고 싶고, 내일로 미루고 싶고, 안주하고 싶은 마음에 매몰차게 결단하게 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올 한해 우리 교단의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이 어떤 일에든지 매순간 전심전력하여 나 자신에게, 또 주님 앞에 최고의 열매를 드리자. 할렐루야!

인천예수중심교회 장영국 목사



2022년의 ‘첫 세줄’

글을 써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글은 ‘첫 세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세줄 안에 자신의 생각과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내지 못하면, 그 뒷부분에 아무리 좋은 내용을 적어도 공중에 흩날리는 글이 된다고 하지요. 이는 유명 작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많은 글들을 읽어본 필자 역시 느끼는 바입니다.

유튜브 같은 영상 콘텐츠는 어떤가요? 역시 ‘첫 1분’이 관건입니다. 1분을 봐도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바로 그 영상을 끄게 되는 게 지금의 문화이죠. 때문에 제작자들은 영상 첫 1분 안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첫 세줄’, ‘첫 1분’과 같은 ‘핵심 구간’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보자면, 예수를 처음 영접한 ‘첫사랑’의 시기가 한 사람의 평생 신앙의 뿌리가 되듯이, 한 해의 첫 시작인 송구영신예배와 그때 들

은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며 목표를 작성하는 시간이 한 해의 ‘핵심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구영신예배에 선포된 말씀 안에서, 내가 이를 목표를 받는 시간, 내가 해야 할 다짐을 작성하는 시간이 반·드·시·어·야만, 이를 위해 기도하며 매사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드디어 열매를 얻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람들의 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작년 송구영신예배 후, 저 역시 한 해 동안 소망하는 버킷리스트를 작성했었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금 읽어보니 아직 진행 중인 1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뤄지고 성취되어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어떻게 이뤄졌을까 곰곰이 묵상해보니, 2021년 송구영신예배 후에 이를 묵상하며 리스트를 작성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노력할 목표도, 지금의 성취도, 성취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도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어진 표어는 ‘우리,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자가 되자!’입니다. 교회에서 직분, 가족 내에서 자녀로, 배우자로, 보호자로 역할, ‘N잡러 시대(직업을 몇 개씩 갖는다는 뜻)’ 사회적으로 쌓아야 할 역량도 참 많습니다. 그 수많은 사명과 역할들 앞에 전심전력하기 위해 먼저 생각을 정리하고, 묵상하며, 목표를 설정하는 ‘첫 세줄’, ‘첫 1분’의 시간을 꼭 가집시다.

그 짧은 시간이 2022년을 웅망한 호랑이의 해로 만들지, 고양이 해로 끝나게 될 지를 결정하는 핵심 구간이 될 것이며, 2022년 12월 31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수확하게 될 첫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인명 집사
renming@daum.net

내 적성을 찾으려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일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방면의 일을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몸은 하나이고 여러 가지 일을 다 경험해볼 수가 없다. 그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간접 경험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이 했던 일을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책을 읽는 것이다.

인터넷과 여러 영상을 통해서도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빠르게 지나가는 정보들을 흡수하는데 급급해, 그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사유할 수 있는 틈이 없기 때문이다. 단 순히 듣고 읽는 것보다 생각하는 시간의 여백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라면, 다방면의 책을 집중적으로 읽어보자. 읽다 보면 자연스레 더 관심이 가고 더 재미있는 독서 분야가 생겨난다. 그리고 그 방면의 책을 집중적으로 더 읽다 보면 웬만한 흐름을 꿰뚫을 수 있는 통찰과 지식이 생겨난다. 그리고 그게 본인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라 확신이 들면 그때 그 방면으로 나아가면 된다.

물론 애매하게 읽는 적당한 독서로 되는 것은 아니다. 임계점을 넘어서는 독서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꾸준히 읽고 꾸준히 생각하고 꾸준히 경험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반드시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나만의 길을 누구나 다 찾아내리라 확신한다.

장명훈 집사

코로나19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Good News

사람들은 병이 들어서 죽거나 사고가 나서 죽고, 늙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근원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주는 가장 큰 두려움은 아마도 죽음에 대한 공포일 것입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어떻게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막연한 공포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간들의 이성이나 상상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하 인간에게 예수 외에는 구원 받을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며,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이 것이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오늘 믿고 내일 죽더라도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다. 구원을 받고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차대한 일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후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생복락의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상화평 목사
sanghwapyung@hanmail.net

:: 한라에 핀 샤론의 꽃 ::

고귀한 나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며, 고귀하고 사랑스러운 것이 무엇일까? 바로 생명이다. 지구상에 많은 생명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인간 생명보다 더 값진 것은 없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증거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동절기 영향으로 우리나라 혈액 보유량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10월 말까지 현혈량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000여 건이 감소했으며, 11월 17일 기준 혈액 보유량이 4.1일분으로 적정 혈액 보유량 5일분을 밑돈다고 밝혔다.

사실 우리나라는 현혈선진국이다. 2018년까지 한해 280~300만 명이 꾸준히 현혈을 해왔고 단체 현혈이 혈액보유량의 높은 비율을 차지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이 발생하면서 감염 우려와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현혈을 피하다 보니 현혈 횟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이다. 우리 앞에 놓인 상황만 보면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 그러나 성경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렘23:11)고 말씀하고 있다. 12년 전, 필자는 두려우면서도 고귀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다양한 수단(e-mail, 메신저, 핸드폰 문자 등)을 통해 나와 유전적 인자가 90% 이상 일치하는 이의 생명과 관련하여 나를 찾는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이라 두려웠다. 그러다 예수님이 수혈해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기회를 내어주셨단 생각이 들었고,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리리오…” 베드로전서 3장 13~1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모님께 승낙 받고 여러 절차를 거친 후 생명 나눔을 경험했다. 참 감사함이었다. 그 후, 필자는 잊지 않고 기도한다. 나에게 혈액을 통해 조혈모세포를 기증받은 이가 육신의 건강 그 이상 예수님의 피로 영혼이 강건하기를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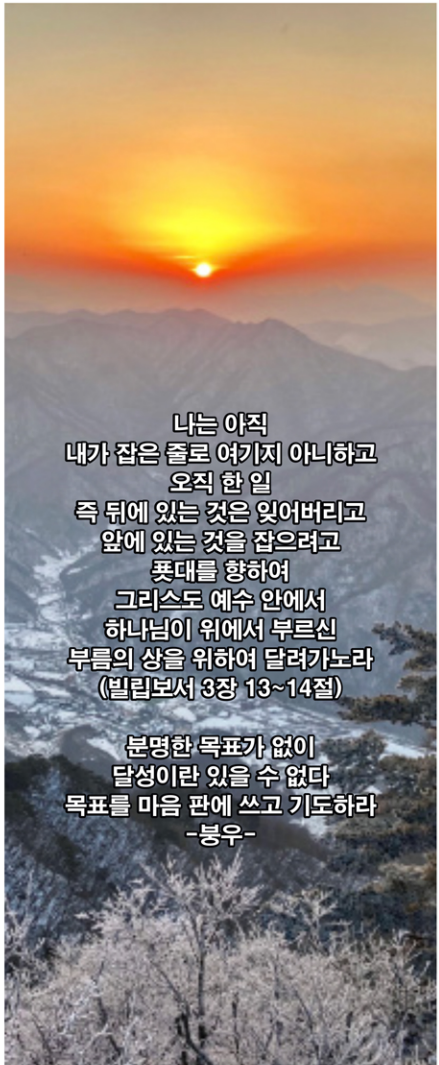
과학과 문명이 발달해 현대사회를 우주과

학시대라고 말하지만, 혈액은 인공적으로 대체할 수 없다.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굴 대신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 절체절명의 위기에 거룩하신 예수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수혈 받은 우리가 나서보는 것이 어떨까.

현혈은 일회성보다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까지가 중요한 절기이다. 이때 예수님의 나눔을 생각하며 현혈을 실천해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진 우리가 대한민국을 피로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함으로 대한민국이 그리스도인들의 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Dr. 권정미
jmgood77@gmail.com



나는 아직
내가 잠은 졸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foot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14절)

분명한 목표가 없이
달성이란 있을 수 없다
목표를 마음 판에 쓰고 기도하라
-봉우-